

결과, 내년 봄을 목표로 「東京지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 지부에는 일본에서 10개 전력회사와 電中研이 참가하고, 이밖에 아시아지역에서 中國원자력공업성, 인도원자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 대만전력공사가 참가한다. 사업내용은 ① 원자력발전의 운전상황, 사고·고장 등의 정보교환,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상황, 운전상황, 사고, 고장에 관한 정보교환회의 개최 등으로 되어 있다.

WANO는 세계 30개국 약 130개 사업자로 구성된다. 아시아지역의 「東京지부」외에 미대륙에 「애틀랜타지부」(미국과 캐나다의 전력회사가 참가), 서구지역에는 「파리지부」(CEGB, 프랑스전력공사 등이 참가), 동구지역에는 「모스크바지부」(소련원자력발전성, 동독 등 참가)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완성되면 세계규모의 네트워크가 실현되게 된다.

## 日本原産 新任會長에 圓城寺 次郎氏



日本原子力産業會議는 6월21일 第37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新任會長에 圓城寺 次郎 會長職務代行(日本經濟新聞新社 顧問)을 選任하였다.

또한 副會長中 小林 自澤, 村田, 山下, 渡邊 氏は 유임되었으며, 綿森 力氏(日本製作所 顧問)가 새로 選任되었다.

圓城寺 新任會長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

〈略 曆〉

- 1907年 4月3日生(東京都)
- 1919年 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卒
- 1919年 中外商業新報社(現 (株)日本經濟

新聞社)入社

- 1968年 同社 社長
- 1976年 同社 會長
- 1980年~同社 顧問
- 1988年 3月 日本原子力産業會議 會長代行
- 其他 주요직책 : 石油審議會 會長, 中央社會保險醫療協議會 會長, 産業構造審議會 委員, 綜合에너지調査會 臨時委員

## 소 련

### Legasov氏의 自殺은 蘇産業界에 대한 無言의 怨望

체르노빌 사고 2주년째 되는 지난 4월 27일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 학자 Legasov씨는 소련 원자력산업의 안전성, 품질 및 책임 등의 심각한 문제로 절망속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5월 20일자 푸라우다지에 실린 그의 「비망록」이 밝혔다. 레가소프씨는 체르노빌 사고후 사후복구팀의 팀장으로 있었다.

레가소프씨 자살에 관한 발표는 키에프시에서 한 국제의학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에 때마침 이루어졌는데 이번 발표로 그가 체르노빌에서 받은 피폭선량이 원인이 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소련 TV방송이 4월 29일 그의 사망을 발표했을 때도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레가소프씨는 당년 51세로 유명한 소련 과학아카데미에 역사상 최연소 회원으로 선출됐었다.

레가소프씨는 그의 비망록에서 그가 다년간 소련 원자력 플랜트의 결함에 대해 당국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그들로 부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저항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가 수십년간에 걸친 소

련의 모든 잘못된 경제 운영의 귀착점이었다고 했다.

레가소프씨는 소련의 「집단지도체제」를 비난하고 이것이 체르노빌의 재난을 가져온 개개인의 무책임감을 조장했다고 했다.

## RBMK爐에 高速運轉停止系統 設置

1,500MWe級 PBMK型爐 2基가 運轉中에 있는 소련 Ignalina發電所에서는 2.1초만에 제어봉이 완전 삽입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현재 試驗中이라고 소련 原子力發電省의 Nikolai Lukonin長官이 밝혔다. 또한 同 長官은 현재의 RBMK爐에서는 제어봉이 삽입되는데 12초가 걸리는데, 그전에는 18초가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各 原子爐에는 이미 RBMK爐에 대해서 취해진 체르노빌事故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81個의 추가적인 흡수봉이 설치되었는데, 이 흡수봉은 우발적으로 인출할 수 없는 Foolproof시스템으로서 인출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이 高速運轉停止系統은 앞으로 2年內에 모든 RBMK爐에 설치될 예정이다.

## 대 만

### 대만전력, 燃料週期延長을 檢討中

대만전력은 플랜트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모색중이지만 최근 한간에서 보건의물리적인 관리가 불충분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함에 따라 방사선 관리에 더 노력하는 한편 연료주기를 18개월로 하려는 계획을 재검토중이다.

대만전력 관계자들은 그들의 3개 플랜트의 이용율과 가동율이 미국의 평균수준보다 높아 대체적으로 良好하지만 아직 특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는 더 높은 이용율을 달성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이 회사 원자력발전처의 한 간부는 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가끔적인 안정된 플랜트 운전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플랜트 내에서의 방사능 공기오염, 제염처리한 금속 스크랩의 매각처분, 보전 및 안전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 예방 등에 대한 몇몇 중업원의 고발사건으로 최근 몇달 동안 갑자기 일기 시작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만전력이 당황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 논란은 오래 지연돼 온 이 회사의 7, 8호 후속기 건설의 재연기로 까지 발전하여 대만 원자력위원회(AEC)로 하여금 조사를 위해 원자력발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 국제위원회를 대만에 조치하도록 하는데 까지 발전했다. 이들은 6월말 내지는 7월초에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다.

「분명히 이러한 모든 일들은 대만전력사람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이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 미국 엔지니어는 말하고 「최근 들어 모든 일이 시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은 갖게 되었다」고 했다.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AEC는 대기오염 방사능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내려 전에는 정상으로 보았던 상황하에서도 플랜트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만전력은 지금 연료재장전 정기간을 단축하도록 독려하기 보다는 정지기간 중의 작업 인원의 피폭선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랜트에서 정지계획을 세울 때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는 정식 계획을 이에 포함시키도록 그들은 지시를 받고 있다. 대만전력은 man-rems 수치를 지금의 400에서 300이